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 03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5 / 3

시절 인연	02	부처님 생애 - 3
법정 스님 편지	06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0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법정 스님 향기 / 백형찬	12	법정 스님이 사랑한 '영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4	보덕정광 普德淨光 주야신 1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7	인간 부재의 시대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0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3월 1일 발행 / 통권 361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부처님 생애

2008년 12월 16일 불교문화강좌 \_법정 스님 특강 3

싯다르타는 보드가야에서 며칠을 걸어 250km 떨어진 갠지스강에 있는 바라나시로 떠납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다섯 수행자가 사슴이 많이 사는 동산[鹿野園]에 산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이 사람들에게 성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아지비카(Ājīvika) 교파 소속 우파카라는 고행자를 만납니다. 부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우파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맑고 얼굴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이 교환하는 의례적인 인사법입니다.

싯다르타가 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이며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스승은 없다. 나에게 견줄 만한 자는 없다. 내가 최고의 스승이며, 부처이다.”

그러나 우파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렇지도 모르죠.”라고 말하곤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최초로 부처를 만났음에도 스치고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무연중생無緣衆生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보았으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

은 우파카한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사 부처를 만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가 어디 법당이라든가, 꼭 2,500년 전 인도에만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시장 바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웃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무시하거나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장소나 어느 특정 인물로만 한정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서도 종교적인 성자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라든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내 스승이고 선지식인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의 세계에서는 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정진입니다. 자기 마음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둘레의 사물이 비쳐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최초의 설법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다섯 수행자가 저기 멀리서 싯다르타가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수행자들이여! 싯다르타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는 타락한 자로서 우리는 인사를 해서도 안되고, 일어서서 영접해서도 안 되고, 본체만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점점 가까이 오자, 성자의 위력에 흡입되어 자신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발 씻을 물과 발판과 수건을 가지고 옵니다. 부처님이 준비된 자리에 앉아 발을 씻자,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의 둘레에 앉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최초의 법륜을 굴렸다고 일명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하는데,

고행주의자인 다섯 수행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최초의 설법을 한 것입니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에는 두 개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 기울어져도 안 된다. 하나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인데 이것은 괴롭기만 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는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깨달았다.”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적당히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바른 길을 뜻합니다. 팔정도八正道, 8가지 바른길이 중도의 내용입니다.

첫 설법에는 부처님 자기 경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속적인 쾌락과 수행 집단에서 고행만 일삼았기 때문에 다섯 수행자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법을 한 것입니다. 중도를 통해서 여덟가지의 성스러운 길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십 생애를 1시간에 정리해서 말할 수 없기에, 책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타 석가모니’ 전기傳記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전기물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그런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아무도 없으며, 유형적인 것은 늘 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설법을

했고, 8만 4천 번뇌를 대체하기 위해 8만 4천에 가까운 대장경을 후세에서 편집하여 모았는데, 이것도 부처님의 설법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종교적인 성자가 할 말도 많을 텐데, 마지막에 하신 유훈遺訓이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입니다. 팔십 생애를 산 위대한 성자의 유언치고는 너무 간단하고 가벼운 것 같은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無常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늘 유동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상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가변적인 환경에서 지켜야 할 것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도 다시 보면 곱게 보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흐름에 따라 풀어버려야 합니다. 모진 마음이란 내 마음이 닫힌 상태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화살을 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화살의 피해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 메아리로서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입니다. 특히 엄마들의 정신이 깨어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집안의 주인은 가구가 아니라 엄마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 이 글은 2008년 12월 16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불교문화강좌에서 하신 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3회(1월호~3월호)에 걸쳐 연재되었습니다.

##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새로 비구가 된 네 사람이 벚나무 아래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빗꽃이 한창이어서 빗갈도 곱고 향기도 그윽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은 좌선하다 말고 꽃그늘 아래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불쑥 말문을 열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만한 것으로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한창 봄이 무르녹아 초목의 빛이 눈부실 때 들녘에 나가 봄놀이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잔치가 있어 친구들이 한데 모여 술잔을 나누면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일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했다.

“많은 재물을 쌓아 두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지. 수레와 말과 옷이 찬란해 남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걸 보고 있으면 가장 즐거울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말했다.

“아름다운 아내와 첩들이 고운 옷을 입고 향긋한 향기를 피울

때, 그들과 마음껏 어울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이때 부처님께서서는 그들이 집은 나왔지만, 아직도 세속의 탐욕에 미련이 남아 있음을 살피고 그들을 부르셨다.

“너희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앉아 무슨 이야기들을 그토록 신나게 했느냐?”

그들은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은 모두가 근심스럽고 두려운 일이며, 위태롭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영원히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다.

보아라, 천지 만물은 봄에는 무성했다가도 가을과 겨울이 되면 시들어 떨어지지 않더냐.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즐거움도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며, 재물과 수레와 말 따위는 언젠가는 모두 다섯 집의 뭉이 되고 만다. 다섯 집의 뭉이란 관청에서의 몰수, 도적들의 약탈, 수재, 화재, 방탕한 자식들의 낭비를 말한다. 그리고 아내와 첩들의 아름다움은 애증과 갈등의 뿌리이니라.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재난을 불러일으켜 몸을 위태롭게 하고 집안을 망치는 일이 모두 그런 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집을 나온 비구는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를 구하되, 그 뜻을 해탈에 두어 영화와 이익을 탐하지 말고 스스로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다.”

부처님은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

욕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락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리

계행과 식견을 두루 갖추어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로 말하며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말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생각한 뒤에 말해  
 온갖 욕망에서 벗어난 이  
 그는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

그때 네 사람의 비구는 이 가르침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크게  
 뉘우쳤다.

〈법구비유경〉 호희품好喜品

**\*법정 스님 강론**

〈법구경〉에서는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두 편의 시를 들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도 없다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곧 집착에 있다.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것은 아예 멀리하려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큰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 속에 뛰어들어 구제하라고 한다. 어떤 것이 올바른 가르침일까? 물론 두 입장이 모두 타당한 가르침이다. 문제는 행위자의 바람과 기량에 달려 있다.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 도를 닦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우리가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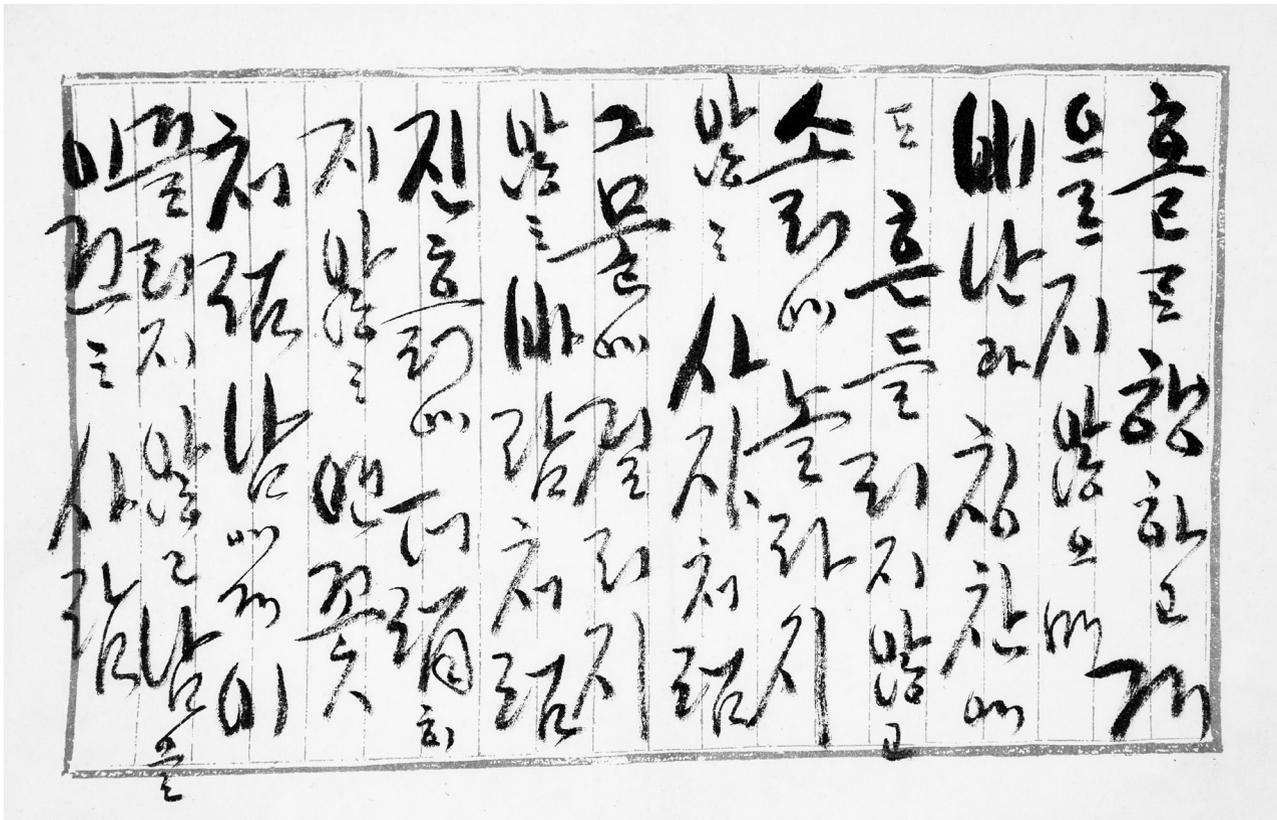
 **2025년 숲기행 안내**

맑고 향기롭게 2025년 숲기행은 “숲길에서 만나는 명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 소	접수일
3월 29일(토)	인천 무의도 둘레길 큰무리선착장 ~ 서어나무군락지 ~ 실미도 ~ 점심공양 ~ 소무의도 둘레길	3월 4일(화)
4월 26일(토)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숲 ~ 낙동강변길 ~ 병산서원	4월 1일(화)
5월 24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점봉산분소 ~ 곰배령	5월 1일(목)
6월 28일(토)	강화 전등사 ~ 정족산성 동문 ~ 산성길 ~ 정족산 ~ 정족산성 남문(서해랑길)	6월 2일(월)

- 참가비 : 3월, 6월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4월, 5월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 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법정 스님 편지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 이 글은 법정 스님의 1993년 덕조 스님에게 보낸 신글입니다.

## 법정 스님이 사랑한 ‘영화’

스님은 영화를 즐겼습니다. 한 편의 영화 속에 인생의 기쁨 [喜]과 노여움[怒] 그리고 슬픔[哀]과 즐거움[樂]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잿빛 승복을 입고 산속에서 단순하게 생활했기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놀라운 장면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스님은 영화를 그냥 스치듯이 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영화 속의 대사를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듣고 살폈습니다. 특히 〈빠빠용〉을 가장 감명 깊게 보았는데, 주인공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목숨 건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인공이 저지른 죄 중에 ‘인생을 낭비한 죄’를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스님에게 영화는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영화는 또 다른 ‘경전’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침 일찍 구경하는 ‘조조할인’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싼값 때문이 아니라 조조<sup>曹朝</sup>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조 영화는 길게 줄지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좌석도 듬성듬성 비어 있어 쾌적하고, 공간의 여유가 있어 좋았습니다. 스님은 조조할인 영화관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구경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모두 선량하다고 했습니다. 〈25시〉를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모리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교육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는 ‘좋은 영화’라고 했습니다. 학교의 교훈은 ‘전통’, ‘명예’, ‘규율’, ‘최고’였습니다. 그 네 가지 교훈은 모두 비인간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해주고 소름까지 돋게 하는 매우 나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존 키딩 같은 선생님이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앞서는 것만 가르치는 교육’이라 비판했습니다.

〈서편제〉는 이청준의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것으로 ‘유봉’이라는 소리꾼이 아들 ‘동호’와 수양딸 ‘송화’를 데리고 다니면서 판소리를 가르치며 겪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렸습니다. 판소리에 한이 맺힌 아버지가 자식들도 판소리에 한이 맺힌 채 살아가도록 한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스님은 서편제를 보고 입버릇이 생겼습니다. 주인공 유봉이 부르는 ‘사철가’를 따라 부르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사철가’를 감정 넣어 부르면 저절로 슬퍼져 목소리도 ‘촉촉하게’ 젖는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모든 생물은 저마다 노래를 지니고 있는데 슬플 때는 슬픈 노래로 위로 삼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로 그 기쁨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나무도 풀도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 보덕정광 普德淨光 주야신 1

선재동자는 바산바연지 주야신이 처음 보리심을 발하던 일과 보살의 장藏을 내던 일과 보살의 원을 세우던 일, 보살의 바라밀을 맑게 하던 일,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던 일, 보살의 벗어나는 길[出離道]을 행하던 일을 똑똑히 알았다. 그리고 온갖 지혜의 광명과 중생을 구원하는 마음과 두루 크게 가없이 여기는 구름과 모든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의 행과 원을 항상 발하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보덕정광 주야신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며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내며 어떻게 보살의 지위를 성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밤을 주관하는 주야신이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고, 이제 다시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고 성취함을 묻는구나.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행을 원만히 할 수 있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청정한 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을 보고, 둘째는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상호와 장엄을 항상 살피고, 셋째는 모든 여래의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의 큰 바다를 알고, 넷째는 법계와 평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광명을 알고, 다섯째는 모든 여래의 터럭마다 중생의 수효와 같은 큰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함이다. 여섯째는 모든 여래의 터럭마다 보배 빛 광명

불꽃 내는 것을 보고, 일곱째는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의 변화를 일으켜 법계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끝까지 이르러 중생을 가르치고, 여덟째는 부처님의 음성을 얻어 모든 중생의 말로써 삼세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고,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의 끝없는 명호를 알고, 열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는 불가사의하고 자재한 힘을 아는 일이다.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모두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선남자여, 내가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님[寂靜禪定樂普遊步]이다. 삼세 모든 부처님을 두루 보고 그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보며, 신통과 명호와 설법과 수명과 말씀과 모습이 저마다 다를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집착함이 없다. 왜냐하면 여래는 지나감이 아니니 세속의 길이 아주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는 것이 아니니 자체의 성질이 무생無生이기 때문이며, 생生이 아니니 법신이 평등하기 때문이며, 멸滅이 아니니 나는 모양이 없기 때문이며, 실實이 아니니 허깨비와 같은 법에 머물기 때문이다. 또 허망함이 아니니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변천함이 아니니 생사를 초월하기 때문이며, 무너짐이 아니니 성질이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 모양[一相]이니 말을 떠났기 때문이며, 모양이 없으니 바탕과 모양이 본래 공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여래를 알 때,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도 분명히 알고 성취하고 자라게 했다. 사유 관찰하고 견고하게 장엄하며,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대비大悲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초선初禪을 닦았다. 모든 의업意業을 쉬고 중생들을 거두며 지력智力이 용맹하고 기쁜 마음이 넘쳐 제2

## 인간 부재의 시대

최종태 선생의 작품 전시회 〈일흔의 시간, 얼굴〉을 보고 왔다. 오랜 만에 최화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지나간 백 년, 20세기 세계 미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림에서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20세기의 그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극소수의 몇몇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관심 밖에 두었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암시를 주고 있다.

거리의 풍경을 많이 그린 어떤 화가는 집과 거리만을 그렸지 거기 전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얼마나 삭막한 풍경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한 모습인가.

예술가들이 인체는 더러 다루지만, 그것은 그림의 도구로 쓰였지,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고 최화백은 말한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인간 부재의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리고 나무와 새와 짐승 등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커다란 흐름이 곧 이 세상이다. 산업사회 이래 탐욕스런 인간들이 이리

선禪을 닦았다. 중생들의 자성自性を 사유하고 생사에 싫증을 내 제3선을 닦았으며, 중생들의 온갖 고통과 번뇌를 모두 없애 제4선을 닦았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서원을 늘게 하고 가득 채우며, 모든 삼매의 바다를 내고, 보살의 해탈문에 들어가며, 온갖 신통에 유희하고 변화를 성취해, 청정한 지혜로써 법계에 두루 들어갔다.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을 닦을 때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시켰다. 집에 있으면서 방일한 중생에게는 부정한 생각, 싫은 생각, 고달픈 생각, 핍박하는 생각, 속박되는 생각, 나찰이라는 생각, 무상하다는 생각, 괴롭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공한 생각, 생이 없다는 생각, 부자유하다는 생각,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각을 내게 한다. 그리해서 스스로도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중생에게도 권해 집착하지 않게 하며, 오로지 법의 즐거움에 머물며 집에서 떠나 집 아닌 데 들어가게 했다. 또 어떤 중생이 고요한 데 머물러 있으면 나는 온갖 나쁜 음성을 쉬게 하고, 고요한 밤에 깊은 법을 말해 순조롭게 행할 인연을 주고, 출가의 문을 열어 바른 길을 보이며, 광명이 되어 어두운 장애를 제거하고 두려움을 없앴다. 출가하는 일과 불·법·승 삼보와 선지식을 찬탄해 공덕을 갖추게 하며, 또 선지식을 가까이하는 행을 찬탄했다. 내가 해탈을 닦을 때는 중생들에게 법답지 못한 탐욕을 내지 않게 하고, 샅된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죄업을 짓지 않게 하고, 이미 지은 이는 모두 쉬게 했다. 만일 착한 법을 내지 못했거나 바라밀행을 닦지 못했거나 일체지를 구하지 못했거나 큰 자비를 일으키지 못했거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못했으면 모두 짓게 하고, 이미 지은 이는 더욱 자라게 해 이와 같이 도에 순종하는 인연을 주기도 하고, 일체지의 지혜를 이루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한 생명의 흐름, 즉 공생 공존의 원리를 무너뜨려 생명의 위기를 불러들였다.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한 현대인들의 맹목이 자초한 함정이다.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린 이와 같은 현상은 거친 폭력으로 나타난다. 자연스런 흐름에서 이탈된 변괴(變) 慳인 것이다. 세상은 지금 온통 폭력으로 뒤범벅이다. 가상 세계가 곧 현실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사각 스크린 앞에서,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게임에서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스크린 밖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한다. 그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폭력영화를 40번이나 되풀이해 보면서 폭력의 불을 지피온 것이다.

이 땅의 저질 정치꾼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면서 걸핏하면 욕지거리와 주먹다짐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마치 의정 활동으로 착각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동과 서로 편 가르기에 열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끝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다.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세계는 지금 온통 폭력으로 넘치고 있다. 그리고 문명의 충돌을 들먹이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편 가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씩'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고 두려워한다.

우리나라 극장가에서는 폭력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쉬리〉, 〈친구〉, 〈조폭마누라〉 등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폭력물을 관람할 시간도 관심도 없지만 폭력물이 성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닌 가려진 구석이 드러난 것이고 폭력에 억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리만족의 배설 기능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말짱한 사람들에게 끼칠 정서적인 영향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눈알을 부라리며 내뱉는 거친 욕지거리와 치고받고 쓰러뜨리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면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억의 필름에 찍혀 잠재의식을 이룬다. 우리 마음 밭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그 씨앗(因)이 어떤 상황(緣)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果)로 드러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일찍이 우리들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한동안 틈을 들다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업業의 파장이고 그 흐름이다.

인간에게서 예절과 신뢰와 품위가 사라져 가는 인간 부재의 시대에 그 인간이 제대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열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곧 우리들 자신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 통화 등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걸치고, 적게 갖고, 적게 만나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하고 싶다. 이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불필요한 사물에 대해서 자제와 역제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종 앙 모 임 (02-741-4696)

#### ■ 2025년 '맑고 향기롭게 6기 대학 장학생' 공모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학업을 위한 생활비와 진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제6기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 ● 장학생 선발 대상

구분	신청 자격(가, 나, 다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불교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에 한함
다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 ● 장학생 신청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장학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남학생만 해당, 군필여부 확인용) 4. 장학금 신청 학생 통장 사본 5.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불교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법정 저소득층 * 1~6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자활근로 확인서 4. 한부모가족 증명서 5. 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6.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7. 차상위 본인부담감감대상자 증명서
기타 저소득층 * 1~2 서류 모두 제출	1. 부모(보호자)의 2024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소득분위(구간) 통지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제출하지 않음
추가 (해당 시)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각종 수상 실적 등 불교 사찰&단체장 추천서

- **선발 인원** : 25명 내외 선발
- **지원 금액** : 400만원 (200만원 \* 2회 분할 지급)
- 본회 장학생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운영
- **서류 접수** : 4월 14일(월) 우편 소인까지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에 주석하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생필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 '자비의 등'의 동참금은 1인 최소 10,000원 이상(등표에는 1명의 이름만 기재함)
- 후원금을 보내실 때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세요.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지원 활동 : 5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 구 모 임 (053-753-8883)

####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3월 1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3월 14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3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일요법회

- **초청법사 :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월정사 수행원장)**
- 일시 : 3월 16일(일) 11시 ● 장소 : 설법전

#### 관음재일

- 일시 : 3월 2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초하루 기도

- 일시 : 3월 29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새신도 교육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설법전
-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제외

#### 마가 스님·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 정 : 3월 8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 동욱 스님·이론과 명상 “명상의 기초”

- 일 시 : 3월 15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3월 22일(토) 18:30~20:3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QR코드 스캔-URL 접속가능)



#### 길상사 14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 일 정 : 3월 4일~11월 4일(매주 화요일)
- 시 간 :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불교입문 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인 원 : 정원 100명
- 동참금 : 40만원(교재비 별도)

#### 길상사 49기 불교입문 수강생 모집

- 일 정 : 3월 6일~6월 5일(매주 목요일)
- 시 간 :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인 원 : 정원 80명
- 동참금 : 15만원(교재비 별도)

### 사경반 3기 수강생 모집

- **일 정** : 3월 5일~7일(매주 수요일)
- **시 간** :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강 사** : 용희 스님(길상사 교무국장)
- **정 원** : 60명
- **자 격** : 사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 **동참금** : 20만원(교재비 별도)

- 자세한 불교 강의 일정은 '길상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접수** : 전화 02-3672-5945, 문자 010-3860-2383  
이메일 kilsangsa@hanmail.net
- **계좌** : 신한은행 140-003-875653 (조계종 길상사)

###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연등공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02.3672-5945)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 법정 스님의 자료·소장품을 기증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친필 원고, 초판본 저서, 사진, 영상자료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자료(소장품) 기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기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법인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계획이오니,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